

■ 2025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국제협업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국제협업지원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09:30~15: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원석, 고주영, 김화용, 안현정, 이나리메, 최원선

2025년도 문예기금 정시공모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사업은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 예술가(기획자)의 창제작 및 국제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편 국제협업지원 사업(기획교류, 창제작 단년 및 다년)은 한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기획 및 창제작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며, 특히 매개자들의 국제적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새로운 국제교류 모델을 시도하는 교류활동 및 프로젝트를 지원(기획교류)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작품 및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리서치 등 창제작 활동을 지원(창제작 단년, 다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외의 관심과 주목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별로 재편된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의 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배경과 맥락을 감안하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시공모 중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비지정형 사업에 총 40건이 접수되었고, 2건의 행정결격을 제외하고 38건이 심의대상이었으며 최종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제협업지원의 경우 총 228건이 접수되었고, 행정결격 8건을 제외한 220건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24건(기획교류 10건, 창제작(단년) 11건, 창제작(다년)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장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심의 형식으로 진행된 본 심의의 기준은 해외 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40%,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20%의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국제협업지원 사업(기획교류 및 창제작)의 경우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30%, 사업 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30%으로 동일한 기준 내에서 배점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심의회는 먼저 개편된 사업체계에 대한 이해와 심의과정 숙지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모든 심의위원들의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 검토 의견 작성 및 사전 채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업 대비 검토해야 할 사업의 수가 많은 편이었으나 전 심의위원이 약 20일의 시간 동안 각각의 지원서류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점수를 입력하고 모든 건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장시간 진행된 대면회의를 통해 개별 지원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의건수가 비교적 많았고 사업의 유형이 복잡하여 심의와 과정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원서류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숙지의 밀도가 높았고, 장르별로 해당 전문가의 의견 등에 대한 촘촘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교류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측면에서 많은 의견 교환들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비지정) 사업 심의에서는 레지던시 참여 자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고, 레지던시 기간 중 계획하고 있는 창작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구체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갖춘 지원서가 높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조정 과정에서는 필수 항목 중심으로 지원액을 조정하고, 수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국제협업지원(기획교류) 사업 심의에서는 개편된 사업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지원서 중 매개자 간 교류계획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춘 지원서와 그 결과의 기대효과가 구체적인 지원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매개자 간 인적교류에 국한되거나 연례적 행사성에 가까운 사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고 지출 예상항목별 유동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지원액 조정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은 단년과 다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단년의 경우 해당 지원자가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파급력이나 실질적인 비용 책정의 타당성 등에서 평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창제작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있는 편이었으나 세부적인 유형과 항목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년의 경우 해당 사업의 다년간 유지 가능성, 지원자의 검증된 노하우와 추진 가능성 등이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년 사업의 특성상 2개년간의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25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친 후 '26년 지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장르별 특성과 최근 국제교류의 동향 등에 관한 전문적 의견들이 논의되고 고려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사전 개별 심사위원들의 배점 점수를 합산한 순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예산의 배분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하였으며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자 중 소수의 사업 포기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국내 예술인들의 달라진 국제교류 역량과 차별화된 주제 의식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예술인들간의 관성적인 교류나 막연한 기대효과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과정들에 대한 현장의 적응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사업취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해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과, 개편과 함께 축소된 기금 규모로 인해 선정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유감은 모든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앞으로 개편된 사업의 세부적인 측면들이 잘 공유되어 현장의 예술인들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추진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